GS칼텍스, 정유설비 개선 박차

3월까지 1700억원 투입 … 중질유분해시설 포함 5개 공정 대상

GS칼텍스는 2월 초부터 3월 하순까지 여수 1공장의 중질유분해설비(RFCC)과 알킬레이션설비(고급휘발유원료) 등 5개 공정에 대한 시설 개선과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들어갔다.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미래 성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전략 차원에서 시설 보수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설비 개선작업에는 1700억원의 예산과 하루 30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으로 보수공사가 끝나면 황함량 8ppm 이하의 최고수준의 휘발유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고, 하루 정유처리능력도 20-30%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용역비의 90% 이상을 여수지역 협력기업들에게 지급할 예정이어서 여수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26>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